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의견

김광용(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2015년 12월 1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심사를 공정위에 제출한 후, 학회/미래부/시민단체/정치권의 토론회 및 세미나가 21회 개최되고, 신문광고 등이 게재되면서 본 결합심사는 기업결합이 공정한가라는 단순 기업 M&A의 이슈를 넘어 이미 한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양 측의 다양한 토의와 논쟁을 통하여 본 결합심사의 장단점이 이슈화 되었고 다양한 시각으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본다. 어찌보면 마이클샌델이 주장하던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토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처럼 우리 사회도 한 단계 더 성숙화된 선진국가로 가는 과정중의 하나라고 보면 좋겠는데, 단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본 사안은 훨씬 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발제자가 주장하듯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었던 제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고, 이러한 구조조정이 단순히 조선업으로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 속에 본 이슈의 정리는 향후 대한민국 성장발전의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두 기업간의 결합이 방송통신산업의 효율적 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침해가 예상된다는 부정적 견해가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편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이슈의 해결방안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해결책이 어려우면 본래의 기업 M&A의 취지 및 원칙으로 되돌아가 문제의 정의부터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기업결합심사가 이슈가 되는 본질적인 문제점의 정의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50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숙명적으로 안고 있었던 부의 심화, 특히 재벌중심의 경제 운용에 대한 일반인의 우려와 미래를 위한 국가산업발전의 효율적 성장이라는 두 축이 양립화되어 논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해결대안은 무엇일까? 어렵지만 두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해법을 우선순위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산업간의 융합은 피해갈 수 없는 대세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서비스업간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와 서비스업이 융합되어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으나 한국은 기존 기득권자의 이해관계로 그 발전이 매우 더디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금융과 통신업의 융합에 대한 대비가 늦어져서 통신강국이라는 강점도 못 살리고, 낙후된 금융산업도 발전시키지 못한 채 외국사례에 떠밀려 뒤늦게 핀테크 산업 육성안을 준비했던 경험이었다.

본 이슈도 어찌보면 과거 이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메가트렌드로 당연히 준비하고 일부러라도 육성해야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정치권, 학계/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본다. 즉 이런 산업간의 융복합화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잘 정비하여 그 해결책을 준비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라고 생각된다. 한번 산업이 고착화되면 혁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으로 속도가 생명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여 미래가 불확실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없다.

전문가도 예측이 힘든 향후 10년 후의 이슈를 일반국민의 여론조사를 빌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그야말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태만이라고 본다. 이슈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그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서로 양보하고 우리 후손을 위한 좋은 국가를 만드는 일이나는 것을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책임지는 행정, 깨끗한 정치, 공감하는 사회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헬조선까지 얘기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기 위하여서라도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도록 규제보다는 시장중심으로 운영되게끔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인다.

그렇다면 재벌중심의 현재 경제운영은 과연 바람직한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더 많은 젊은이들을 고용하고, 벤처/중소기업과 상생하여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할 것이다. 과거 재벌들이 기업운영에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비자와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만드는 활동은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하여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논란의 중심인 SKT가 국내의 이동통신 사업의 선두주자로 많은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미국,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진출한 거의 모든 사업에서 실패한 것은 어찌보면 경쟁력은 없는데 국내 시장에서 힘없는 소비자를 담보로 하여 너무 편하게 사업하면서 생긴 폐해는 아닌지? KT와 LG U+가 그 많은 벤처/중소기업이 제안하고 시도하였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본인 기업의 이익만 취한 사례는 과연 지금의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진실성이 있는지?

재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재벌 중심의 대기업보다 아이디어/창의성 중심의 벤처/중소기업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라도 벤처 중소기업과 함께 하지 못했던 그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솔직하게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국민과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그 가치를 함께 찾아 발전시키겠다는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의 인수합병이 시대의 흐름에 합당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새로운 융합산업에서는 그간의 재벌중심의 운영을 배제하고 진정으로 벤처/중소기업간의 상생을 꼭 성공시킨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할 때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기업의 M&A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고, 정부는 최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단 기업, 특히 재벌 기업은 새로운 산업혁명시대에 벤처/중소기업과의 진정한 상생협력없이 그 어떤 새로운 신산업도 성공이 힘들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공유가치창출(CSV:Creating Shared Value) 중심의 경영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